

# 토론문

나영정(퀴어활동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감염병과 혐오

-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는 한국에서
- ‘중국 우한’, ‘대림동 중국동포’, ‘신천지’,
- ‘성소수자’, ‘쿠팡맨’, ‘우파 교회’ 등.
- 세계적으로는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부상.
- 이는 단지 확진이 나온 특정 집단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구조에 존재했던 인종/ 계급/ 성적 혐오(불결하다, 문란하다, 낙후되어있다...)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폭발적 영향을 가짐.
- 세계적 이동의 조건, 경제성장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 기조에 따라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는 조장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쿠팡사업자와 우파 교회를 움직이는 우파 지배세력의 책임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음.



# 방역당국의 정치

- 메르스 이후 확진자 동선공개가 제도화: 당시 삼성병원이 정보를 은폐하여 확산된 측면이 크지만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장의 동선공개가 인기를 얻으면서 방향이 설정.
- 기초 단체장의 역학조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공개를 정치에 활용하는 방식(포퓰리즘). 주민의 '알권리'가 방역이나 개인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은 채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
-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확진자 동선공개에 담을 내용은 자의적. 현재 방대본에서 3차 지침을 내려 범위 조정하였음. (나이, 성별, 국적, 직업, 주소지 정보 제외)

완료

geumcheon.go.kr

AA ↺



동네방네.행복도시 금천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 ／ 확진자 동선

🏠 > 재난/안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확진자 동선



제목

(7.2.)금천구 33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 (7.2.)금천구 33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 금일(7.2.) 확진 판정된 33번째 확진자

(복합1동, 30세, 남성, 동거가족 1명)에 대한 CCTV 확인과 현장 방문조사, 카드 확인내역을 반영하여 동선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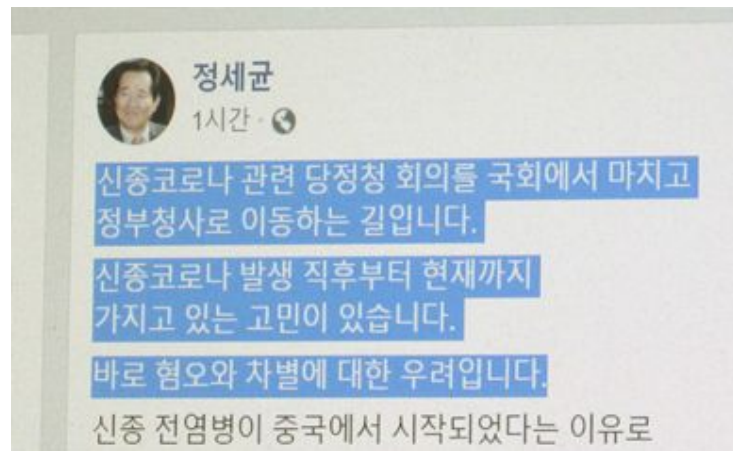
#### 참 고 사 항

- ▶ 대응 지침에 따라 **출산 발원일(7.1.) 2일 전부터 동선을 공개합니다.**
- ▶ 확진자는 **관악구 102번 확진자(왕성교회)의 접촉자**이며, 6.26.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 7. 1. 2차 검사 결과 『**확진(양성) 판정**』 되었습니다.
- ▶ 지역 및 방문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 K 방역의 기반과 이후

- 개인정보 광범위한 활용에 대한 **대중적 동의 혹은 체념**을 통해서 구축한 K방역. 현재 지역사회 N차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의도적으로 역학조사를 회피하는 집단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음. 공공병원 병상확보, 인력확충, 후유증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소재 모호 등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음.
-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위치정보, 카드결제 내역 등)이 모호한 대상(**민간 역학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음. 개인정보 관리, 파기 규정 또한 법적 근거 미비. 또한 위치정보의 경우 밀접접촉자를 가려내는데 효과가 검증된바 없음.
- 기지국 정보의 경우 보건당국, 지자체, 경찰력, 이동통신사 간의 법적 근거 미비한 채 핫라인이 움직임. 현재 이렇게 집적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
- 공공과 민간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공적 책임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음.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체제에 함의하는 바를 고민할 필요.

- 이주민 집단, ‘미등록’ 이주민 워딩, 성소수자 혐오 반대 등에 대한 메시지를 중대본(국무총리), 방대본(질본), 서울시장, 경기도 등에 의해서 최초로 발언되었음. 위기속에 진전인가? 인권이 방역에 복무? 이에 대해 정치적인 질문이 필요함.
- 이태원발 감염이 시작되고 성소수자가 검진을 하러 오기 시작했을때 기저질환 질문을 HIV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묻거나 HIV테스트를 권유하고 진행하기도 하였음. 이는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검진의 장벽이 발생하였음.
-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의료의 영역 안에 낙인의 정치/장치



#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대응



-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인권운동이 대응
- 검진에 협력, 커뮤니티 지원, 인권침해 대응
- 장벽을 제거: 익명검사 도입,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제기(방역효과에 대한 의문제기, 바이러스와 사람/장소 관계맺는 방식에 대한 제고)
- 커뮤니티 신뢰 구축, 종로/이태원 장소성에 대한 환기(만나는 곳, 일하는 곳, 사는 곳)
- 감염병과 섹슈얼리티의 문제(찜질방 등 조명)를 직면하고 발언
- 확진자동선공개, 범죄화에 대한 문제제기, 익명검사 도입 요구 등은 HIV/AIDS 인권운동의 유산을 계승.
- 혐오로 인한 건강 침해 발생

# 뉴노말을 귀어화하기

- 이태원 집단 감염에 대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내부적 단속과 배제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논리가 득세함. ‘이 시국에 클럽가는 게이’, ‘평소에 짬방다니는 게이’를 정체성에서 탈각시키려는 시도. 이 지점이 정확하게 ‘젠더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혐오의 지점이기도 함.
- 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오래된 패닉과 방어기제이기도 하였고 현재 진행중이기도 함. 감염인/비감염인, MSM와 다른 성소수자, 젠더 등을 통해서 경계가 형성되기도. 바이러스에 이름붙이기는 이렇게 내부-외부를 가리지 않고 진행.
- 서보경은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HIV 운동은 바이러스와 싸운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혐오, 건강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연대운동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말을 어떻게 귀어화할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함께 생태, 장애, 질병, 나이듦, 자본주의적 배분 정치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

# 진행중인 변화들, 남은 과제

- 방역에 대한 협력 혹은 거부의 이분법을 넘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순응하는 신체가 아니라 어떤 관계와 돌봄을 생산하는 신체들이 될 것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젠더/섹슈얼리티 정치에 개입할 수 있을까.
- 위험집단으로 지목되기, 방역에 협조하기, 검진을 지원하고 장벽을 없애기, 커뮤니티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호하기 사이에는 큰 심연이 있음. 코로나 대응은 이 심연을 직면하는 과정이었음.
- MSM 사이의 익명의 관계성과 섹슈얼리티는 생태계의 일부, 퀴어여성 대상 데이팅 어플 또한 계속 성장세에 있고 익명의 섹스 증가 추세. 안전의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HIV운동과 퀴어 운동이 일구어왔고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급진적 성정치와 돌봄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접촉은 사라지지 않고 변형되는 것. 노동과 생태 정치를 통합하기.
- ‘개인’을 기반으로한 인권의 단위들은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과 ‘커뮤니티’를 다시 상상하게 하는가. ‘집단 면역’과 같은 상상들. ‘결’의 조건에 대한 재인식. (접촉자를 알 수 없어 넓게 검진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을 권리에 적용하기)